

6/4/23

설교 제목: 회복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스가랴 8 장 1- 23 절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약속

- (속 8:1)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 (속 8:2)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절관주** 나 1:2, 속 1:14
- (속 8:3)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절관주** 렘 30:10, 속 1:16, 시 46:5, 렘 31:23
- (속 8:4)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 (속 8:5)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절관주** 눅 7:32, 렘 30:20, 렘 31:12, 렘 31:13
- (속 8:6)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 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절관주** 시 118:23, 눅 1:37
- (속 8:7)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 (속 8:8)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절관주** 렘 31:1, 호 2:19
- (속 8:9)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절관주** 학 2:18, 스 5:1, 스 5:2
- (속 8:10) 이 날 전에는 사람도 샅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샅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 주게 하였느니라
- (속 8:11)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절관주** 시 103:9, 사 12:1

- (속 8:12)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절관주** 사 30:23, 사 61:7, 마 6:33
- (속 8:13)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절관주** 창 12:2
- (속 8:14) ○만군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격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절관주** 대하 36:16
- (속 8:15)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 (속 8:16)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 (속 8:17)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와 같이 말하라
- 금식에 관하여 말씀하시다
- (속 8:18) ○만군의 여호와와 같이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 (속 8:19) 만군의 여호와와 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 (속 8:20) 만군의 여호와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 (속 8:21)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 (속 8:22)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 (속 8:23) 만군의 여호와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스가라서는 전반부 삽입부 후반부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장에 이어 본장은 그중 삽입부입니다.

삽입부에는 금식과 회복, 두 개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본장은 전장 금식에 대한 메시지에 이어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 공사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과 함께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내용입니다.

성전 재건 공사가 한창이던 B.C. 518 년 바사 (페르시아) 다리오 왕 제 4 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참고로 성전 재건 공사는 BC 520-516 년까지 4 년간 이루어졌습니다.

(슥 8:1)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슥 8:2)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은 당신이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고 시온을 위하여 분노함으로 크게 질투한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적들에 대해 분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위해 크게 질투하신다는 이 말씀은 제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 배우자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아무런 관심도 없고 질투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질투하기 마련입니다.

부부는 부부만의 절대적인 관계를 지키려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타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과의 '관계의 절대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호 2:19) 내가 네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 들며

(호 2:20)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관계의 절대성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살 때에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떠나셨던 하나님이 돌아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스 8:3)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되고 여호와의 산 (시온 산)이 성산 곧 거룩한 산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시온 산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그곳에 진리와 거룩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되어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평화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스 8:4)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스 8:5)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그동안 예루살렘에는 나이든 사람들과 어린이들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 든 이들은 세상을 떠났고, 젊은이들은 모두 바벨론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아이들이 태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아들 딸 낳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이히 여길 것이라고 하십니다.

(스 8:6)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 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당시 예루살렘은 참 황량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고 70 여 년이 지난 후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을 때에도 예루살렘에 살 사람이 없어서 자원자들과 백성 중에서 10 분의 1 을 제비를 뽑아서 거주하게 했습니다.

아직 정비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외적이 침입하면 공격대상 1 순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기이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당연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보고 기이하게 여길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리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방에서 모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슥 8:7)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슥 8:8)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계 만방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 곧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성전 재건에 힘쓰라고 권면하십니다.

(슥 8:9)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받게 될 복을 열거하십니다

(속 8:10) 이 날 전에는 사람도 샅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샅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 주게
하였느니라

(속 8:11)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속 8:12)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속 8:13)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여도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원수들로 인하여 항상 불안해하며 살았으나 이제는 바뀔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마음을 정하셨다고 하시며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성전 재건을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하십니다.

(속 8:14)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격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속 8:15)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보고
격노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백성들은 이방에 포로로 끌려가 포로로 70 년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다고 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할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삶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속 8:16)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속 8:17)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과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 것과 거짓 맹세를 하지 말 것을 언급하십니다.

공의롭게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다.

금식절과 같은 형식적인 종교 의식을 지키기 보다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7장에서 베엘 사람이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오월 중에 울며 근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실제적인 답변을 하십니다.

(속 8:18)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속 8:19) 만군의 여호와와 그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에 지키라고 명령한 금식일 외에 넷째 달과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과 열째 달, 네 금식일을 정해놓고 금식을 했습니다.

이 네 금식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 간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를 애통해하며 지키던 금식들이었습니다.

넷째 달 금식은 B.C. 586년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바빌론 느부갓네살왕에게 공격을 받아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기 시작한 날을 애도하는 금식입니다.

다섯째 달 금식은 그 후 약 한 달 후,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이 완전히 파괴되고 불타버린 날을 애도하는 금식입니다.

일곱째 달 금식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임시 총독으로 세워진 그달리야가 이스마엘에 의해서 살해된 것을 애도하는 금식입니다.

열째 달 금식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의해 포위되었던 것을 애도하는 금식입니다.

참고로 예루살렘은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서 2년 동안 포위되었다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픔들을 기억하며 애도하는 금식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어 세계 여러 나라가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스 8:20) 만군의 여호와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스 8:21)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스 8:22)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스 8:23) 만군의 여호와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 날에는 유다 백성들과 많은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서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 명’에서 ‘열(10)’은 ‘완전수’를 뜻합니다.

신약 시대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만국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그발 강변에 살면서 강제로 노역해야 했던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연유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은 죄로 인하여 고난에 빠져 절망 가운데 있으신지요?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베푸셔서 절망과 애통의 날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날로 바뀌게 해 주실 것입니다.